

경비원 해고 대신 감사안기 한파도 녹인 따뜻한 아파트

추운 연말에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던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주민이 톨톨 뭉치는 등 광주 곳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넘쳐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 감원 바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민들의 ‘경비원과의 상생 열풍’이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비 상승 여파로, 사회적 약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감도 확산하고 있다.

6일 광주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풍암금호타운 1차 아파트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입주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아파트 경비원을 기존 14명에서 6명을 감축하는 투표를 하기로 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경비원 감축 투표는 지난 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투표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사실상 경비원 감축이 중단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경비원 감축 투표일이 통보된 이후 570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는 한 주민의 호소문이 부착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감원 바람속

서구 한 아파트 주민 호소문

주민들 한마음 한뜻 상생 결정

경비원 6명 해고 투표 무산시켜

북구 아파트 6곳은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협약도

이 호소문에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경비아저씨들에겐 생계가 걸렸다”면서 “아파트 관리에 힘써온 경비원 수를 줄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호소문은 주민의 마음을 하나, 둘씩 움직이게 했고, 일부 주민은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경비원 해고 투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결국 지난 5일로 예정됐던 투표를 취소했다.

이 아파트에는 14명의 경비원이 고용돼 2교대로 7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돼 6명의 경비원이 해고됐다면 아파트 1세대당 1년에 30만원(한 달 기준 2만5000원) 상당의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관리사무소의 설명이다.

아파트 주민 김영호씨는 “10년 넘게 아파트를 위해 고생한 경비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고작 3만원을 아끼려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상생 결정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자랑스럽

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남구 주월동 해태 1차 아파트에서 기존 4명인 경비원을 1명 감원하는 안과 기존대로 유지하는 안을 투표한 결과, 기존 유지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264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주민 2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체의 62%인 134명의 주민이 경비원 유지안을 지지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내년 도 (아파트경비원 등의)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관리비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비원 감축으로 결정됐으면 세대당 월 4000~6000원 정도의 관리비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주민의 상당수가 함께 상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북구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지역 6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아파트는 용봉현대·호반·운암현대·두암을 고택타운·일곡상용·대림 1차 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용 불안·낮은 임금·주민의 폭행 등 아파트 경비원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북구노사민정협의회,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경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근무환경 개선 ▲노동 인권 증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행정정보 제공 등이다. 북구는 내년에도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6일 광주시 동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각 도입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광주경실련 “공수처 즉각 설치하라”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6일 광주시 동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며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며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돼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야구장 소음·빛 피해 손배소 오늘 선고

결과 따라 유사소송 잇따를듯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야구장 소음·빛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2년 만인 7일 나온다.

국내에서 야구장 피해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따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련 피해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광주 야구

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이 광주시와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통증을 받고 있다”며 2015년 9월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dB)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감레이저수(인공조명 빛공해 정도)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 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와 구단은 주민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항소 여부와 함께 배상 주체와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실제 경기가 열린 기간 해당 아파트, 야구장에서 검증기일을 열고 소음과 빛 피해 정도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000㎡, 연면적 5만 700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인근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용역업체, 아파트 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첫 제동

대법 “계약 끝나도 해고 못해”

대법원이 경비원과 용역업체 사이에 일반화된 ‘고무줄 해고’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아파트와 용역업체의 위탁관리 계약이 끝나면 용역업체가 고용 기간이 남은 경비원도 모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계약 조항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 같은 독소조항은 전국 아파트·빌딩 등 경비원 상당수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6일 “경비원 박모씨가 옛 소속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

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박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로 취업한 박씨는 한 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히 일했지만 석 달간의 수습 계약 기간 직후 용역업체에서 해고당했다.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억울함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박씨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가 일하던 아파트와 용역회사 사이의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돌아갈 직장’이 없어졌다’는 이유

였다. 박씨의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1·2심은 이 조항을 토대로 부당해고 여부와 별도로 박씨와 업체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봤다. 특히 2심은 이 조항이 용역업체 위탁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용역업체와 아파트의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박씨와 업체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아파트-업체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도 박씨의 정당한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나훈아·엑소 티켓 판다더니…돈만 가로챈 20대 검거

중장년층에게 인기 있는 가수 나훈아와 젊은 세대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등 6000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몰품 사기를 벌인 20대가 검거됐다.

국성경찰은 6일 피해자 104명에게 인터넷상에서 허위로 콘서트 티켓과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68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모(2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가수 나훈아와 아이돌 그룹 엑소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고, 골프채 등 중고물품 사기 행각도 펼쳤다.

조사결과 지씨는 콘서트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자신이 구매해놓은 티켓의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예매부터 배송까지 1~3주 정도 소요됨을 악용해 한꺼번에 수많은 피해자를 속였다.

나훈아나 엑소 등 인기가 있는 가수의 경우 20만~50만원의 웃돈을 얹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기도 했다.

지씨는 과거에도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이번에는 검거를 피하고자 대포폰 4대와 대포통장까지 구해 범행에 활용했으나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왜 실업급여 안 줘” 분신 소동



○전북 남원에서 ‘실업급여를 안 준다’며 고용센터에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서행.

○6일 남원경찰에 따르면 김모(55)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남원시 하정동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했다는 것.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4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것”이라면서 “직장을 잃은 뒤 급여마저 끊기자 너무 화가나 분신을 시도했다”며 선처를 호소.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